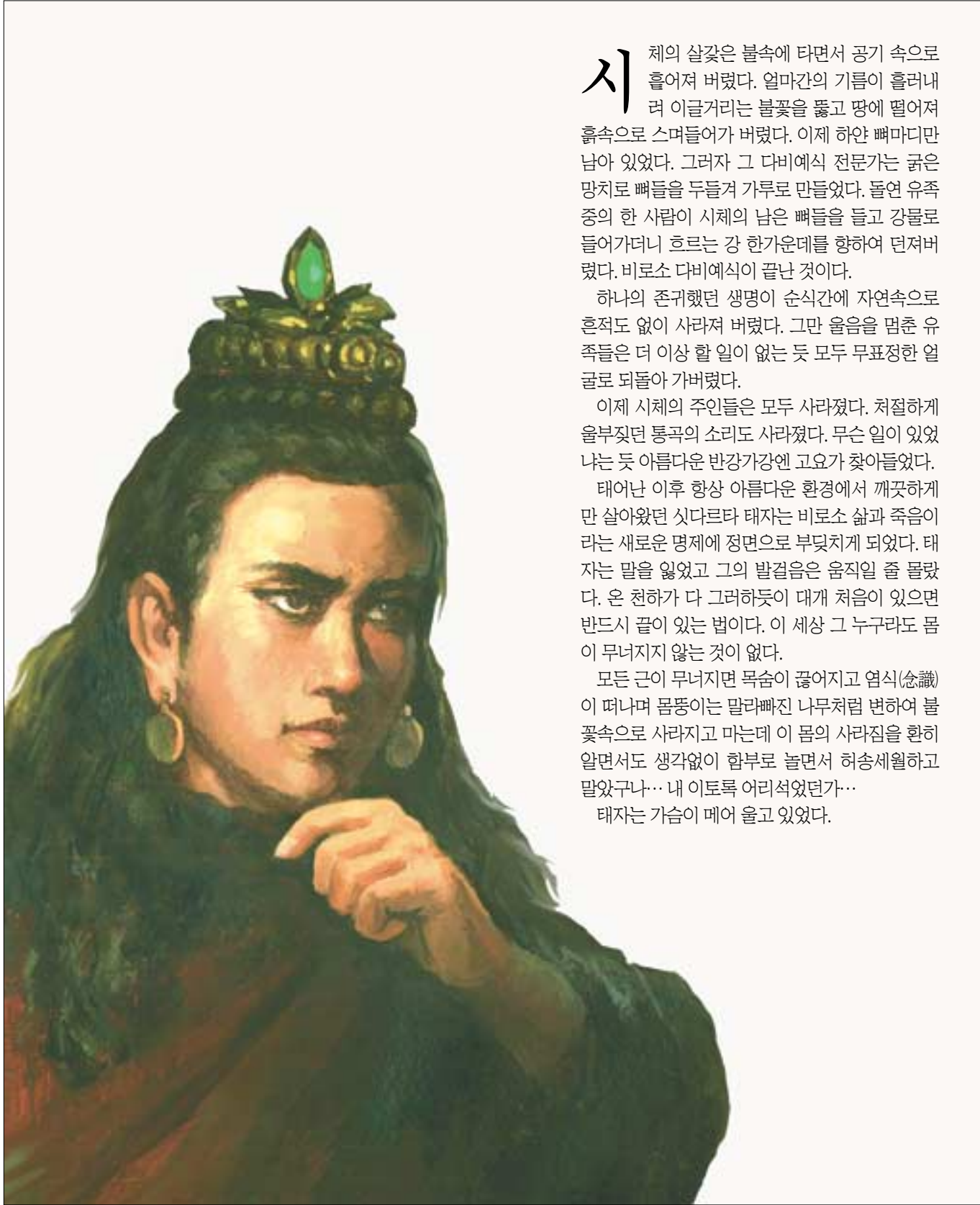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4화 사문유관상 ③



시 제의 살갓은 불속에 타면서 공기 속으로 흩어져 버렸다. 얼마간의 기름이 흘러내려 이글거리는 불꽃을 뚫고 땅에 떨어져 흙속으로 스며들어가 버렸다. 이제 하얀 뼈마디만 남아 있었다. 그러자 그 다비예식 전문가는 굵은 망치로 뼈들을 두들겨 가루로 만들었다. 돌연 유족 중의 한 사람이 시체의 남은 뼈들을 들고 강물로 들어가더니 흐르는 강 한가운데를 향하여 던져버렸다. 비로소 다비예식이 끝난 것이다.

하나의 존귀했던 생명이 순식간에 자연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만 울음을 멈춘 유족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듯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되돌아가버렸다.

이제 시체의 주인들은 모두 사라졌다. 처절하게 울부짖던 통곡의 소리도 사라졌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름다운 만강가강엔 고요가 찾아들었다.

태어난 이후 항상 아름다운 환경에서 깨끗하게만 살아왔던 싯다르타 태자는 비로소 삶과 죽음이 라는 새로운 명제에 정면으로 부딪치게 되었다. 태자는 말을 잃었고 그의 발걸음은 움직일 줄 몰랐다. 온 천하가 다 그러하듯이 대개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법이다. 이 세상 그 누구라도 몸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근이 무너지면 목숨이 끊어지고 염식(念識)이 떠나며 몸뚱이는 말라빠진 나무처럼 변하여 불꽃속으로 사라지고 마는데 이 몸의 사라짐을 환히 알면서도 생각없이 함부로 놀면서 허송세월하고 말았구나... 내 이토록 어리석었는가... 태자는 가슴이 메어 울고 있었다.



“사 람이 이 세상에 있음은 마치 물위에 떠 있는 마른 풀나무요, 풀끝에 매어달린 이슬과도 같다. 모든 것이 다 덧없고 꿈같으며 진실된 것은 하나도 없어 이제 나로 하여금 생사윤회(生死輪回)에 빠지게 하였구나. 아. 슬프다! 인간들이 모두 탐욕에 빠져 괴로움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생육도에 윤회하며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는 것을... 다만 뜬 구름같은 부귀영화를 탐내고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으면서 괴로움의 바다를 한없이 윤회하고 있으니 내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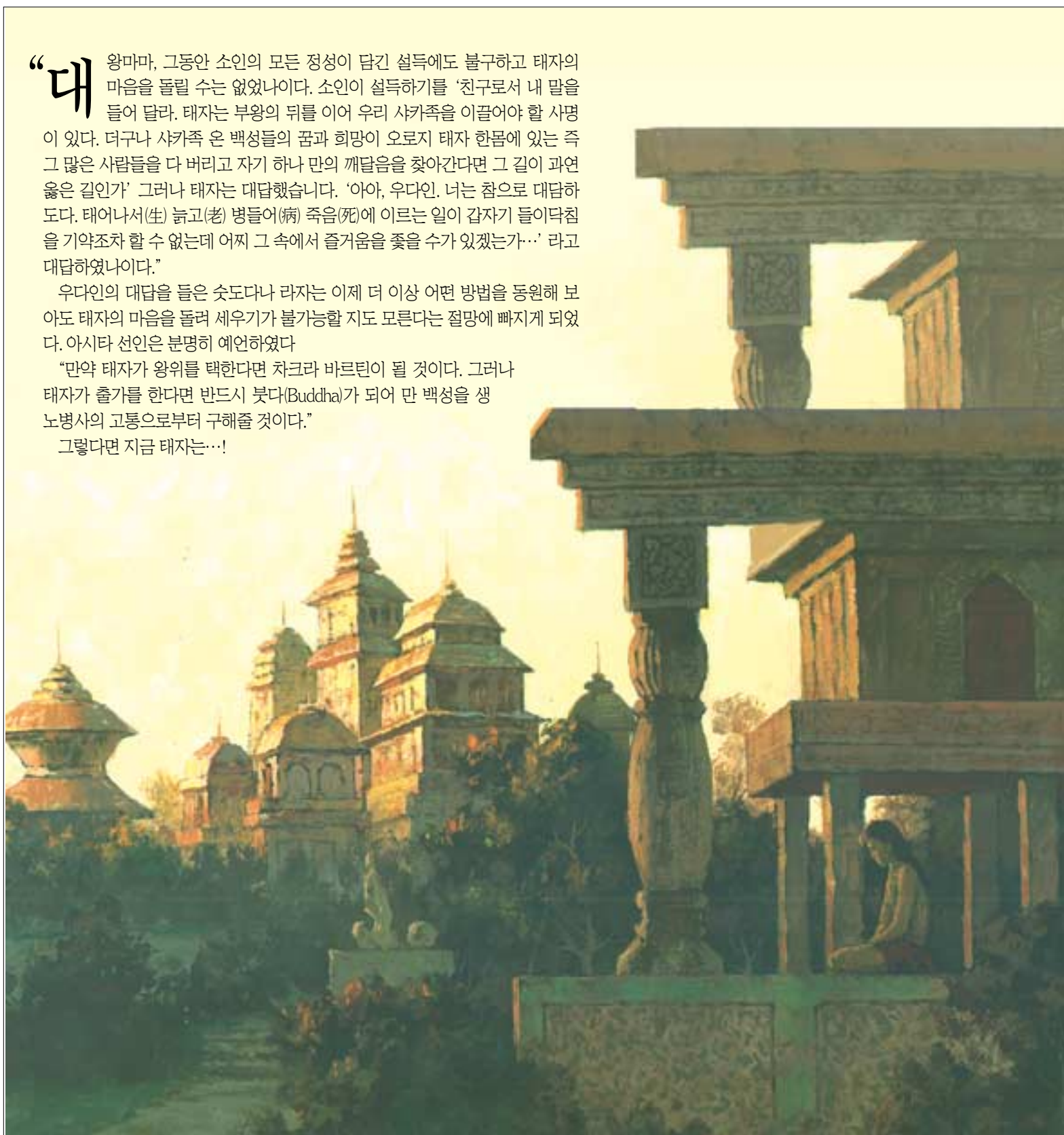
방향없는 고뇌의 바다속에서 헤매던 태자는 무심히 흐르는 강물을 하염없이 응시하며 좁게로 발걸음을 옮길 줄 몰랐다.

그 날이 있고난 후 태자는 태자궁에서 두문불출하며 아직까지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놓고 심오한 번민에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지난 번의 경우처럼 2-3주일 이면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회색을 되찾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싯도다나 라자도 시간이 흘러가며

변할 줄 모르는 태자의 모습에 크게 당황해 했다.

이제는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깊은 고뇌의 숲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바라보는 싯도다나 라자의 심정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고 괴롭기만 했다. 그동안 수 많은 여인들을 보내 아름다운 노래와 춤과 음식을 권해 보았지만 태자의 굳은 의지를 움직일 수는 없었다. 싯도다나 라자의 마음은 극도로 불안하여졌다. 조금만 더 방치해 두면 싯다르타 태자의 마음은 아주 멀리 가버릴 것이고 그리 되면 자신의 뒤를 이어 샤카족을 이끌어줄 차크라 바르틴(전륜성왕)의 꿈도 이를 수 없게 될 것이었다. 더구나 왕가의 세속도 단절이 될 것인즉 라자의 초조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싯도다나 라자는 우다인을 불렀다. 우다인(Udayin, 優陀夷)은 카필라 바스투성의 국사의 아들로서 싯다르타와 같이 공부했던 학우였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친구의 설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라자의 계산이었다. 라자의 명령을 받은 우다인은 있는 지혜를 모두 동원하여 태자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갖은 노력을 하였다.



“대 왕마마, 그동안 소인의 모든 정성이 담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태자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나이다. 소인이 설득하기를 '친구로서 내 말을 들어 달라. 태자는 부왕의 뒤를 이어 우리 샤카족을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다. 더구나 샤카족 온 백성들의 꿈과 희망이 오로지 태자 한몸에 있는 즉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버리고 자기 하나만의 깨달음을 찾아간다면 그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그러나 태자는 대답했습니다. '아아, 우다인. 너는 참으로 대답하도다. 태어나서(生) 늙고(老) 병들어(病) 죽음(死)에 이르는 일이 갑자기 들이닥침을 기약조차 할 수 없는데 어찌 그 속에서 즐거움을 좇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대답하였나이다."

우다인의 대답을 들은 싯도다나 라지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방법을 동원해 보아도 태자의 마음을 돌려 세우기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아시타 선인은 분명히 예언하였다

"만약 태자가 왕위를 택한다면 차크라 바르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태자가 출가를 한다면 반드시 붓다(Buddha)가 되어 만 백성을 생노병사의 고통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태자는...!

